

 <b>기획재정부</b>		<h1>보도참고자료</h1>	
보도일시	<b>'21. 5. 12.(수) 10:00</b>	배포일시	2021. 5. 12.(수) 08:00
담당과장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동익 (044-215-4710)	담당자	김민주 사무관 (kimminju@korea.kr)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5.12(수),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

\* 무디스는 '21.3월 기재부·한은 등과 올해 연례협의 실시

-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등급
- 한국 경제의 강한 펀더멘탈,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에 따른 빠른 회복을 높이 평가하며, 우수한 성장세 지속 전망
- '21년 성장률을 3.1%(21.2월 전망)에서 3.5%로 상향조정

무디스의 주요국 국가신용등급('21.5월 현재)

신용등급	국가명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b>싱가포르</b>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Aa2	<b>한국</b> ,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Aa3	영국, 벨기에, 체코, <b>홍콩</b> , 마카오, <b>대만(+)</b>
A1	<b>일본</b> , <b>중국</b> ,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A2	아일랜드, 폴란드
A3	페루, 말레이시아

\* 국가명 뒤 (+)는 "긍정적" 전망, (-)는 "부정적" 전망, 나머지는 "안정적"

◇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으로 재정안정화에도 노력

## 1. 무디스 발표문 주요 내용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무디스 보도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 링크 및 첨부한 무디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링크:

[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Strong-fundamentals-underpin-Koreas-resilient-recovery-and-Aa2-rating--PR\\_446227](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Strong-fundamentals-underpin-Koreas-resilient-recovery-and-Aa2-rating--PR_446227)

□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Aa2, 안정적)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한 펀더멘탈을 반영

○ 국가채무 증가, 고령화, 對北 리스크는 도전 요인

□ '20년 한국 GDP 성장률은  $\Delta 1.0\%$ 로 유사 신용등급을 가진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하였고,

○ '21년에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3.5\%$ \*로 반등 전망

\* 지난 '21.2월 전망치 대비  $+0.4\%p$  상향조정

□ 한국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전망에 따라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장기간 유지해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할 수도 있음

\* "testing the long-established track record of fiscal discipline"

○ 다만,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하에서 부채비용이 안정적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 여력(debt affordability)은 계속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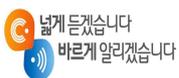
□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요인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상당 수준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임

○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피해, 정부재정의 대규모 악화는 하향요인

## 2. 평가 및 대응

- 최근 우리 경제가 보여준 위기대응력 및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
  - 지난 4.28일 S&P의 신용등급 유지(AA, 안정적)에 이어, 우리나라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
    - \* '21.1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1.6% 성장, CDS 프리미엄 최저치(19bp) 경신(5.5일) 등
  - 특히, '21년 성장률 상향조정은 우리의 우수한 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반영
-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와 우리 경제동향 및 현안 등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최근 신평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
  -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는 한편,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시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 [참고 1]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내역
- [참고 2]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1.5월 현재)
- [참고 3] 무디스 보도자료 원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mailto:moefpr@korea.kr)



## 참고 1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Moody's			S&P			Fitch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일자	등급	전망
<b>15.12.18</b>	<b>Aa2</b>	<b>Stable</b>	<b>16.08.08</b>	<b>AA</b>	<b>Stable</b>	<b>12.09.06</b>	<b>AA-</b>	<b>Stable</b>
15.04.10	Aa3	Positive	15.09.15	AA-	Stable	11.11.07	A+	Positive
12.08.27	Aa3	Stable	14.09.19	A+	Positive	09.09.02	A+	Stable
12.04.02	A1	Positive	12.09.13	A+	Stable	08.11.10	A+	Negative
10.04.14	A1	Stable	05.07.27	A	Stable	05.10.24	A+	Stable
07.07.25	A2	Stable	02.07.24	A-	Stable	05.09.19	A	positive
07.07.03	A3	RUR(P)	01.11.13	BBB+	Stable	02.06.27	A	stable
06.04.25	A3	Positive	99.11.11	BBB	Positive	02.05.13	BBB+	Wat Pos
04.06.11	A3	Stable	99.01.25	BBB-	Positive	00.09.21	BBB+	Stable
03.02.11	A3	Negative	99.01.04	BB+	Positive	00.03.29	BBB+	-
02.11.15	A3	Positive	98.02.18	BB+	Stable	99.06.24	BBB	-
02.03.28	A3	Stable	98.01.16	B+	Wat Dev	99.04.26	BBB-	Wat Pos
01.11.29	Baa2	Positive	97.12.22	B+	Wat Neg	99.01.19	BBB-	-
99.12.16	Baa2	Stable	97.12.11	BBB-	Wat Neg	98.12.22	BB+	Wat Pos
99.08.23	Baa3	RUR(+)	97.11.25	A-	Wat Neg	98.06.19	BB+	-
99.02.12	Baa3	Positive	97.10.24	A+	Negative	98.02.02	BB+	Wat Pos
98.12.18	Ba1	RUR(+)	97.08.06	AA-	Negative	98.01.21	B-	Wat Pos
97.12.21	Ba1	RUR(-)	95.05.03	AA-	Stable	97.12.23	B-	Wat Neg
97.12.10	Baa2	RUR(-)	94.11.09	A+	Positive	97.12.11	BBB-	Wat Neg
97.11.27	A3	Stable	94.06.09	A+	Negative	97.11.26	A	-
97.10.27	A1	Negative	89.06.26	A+	Positive	97.11.18	A+	-
97.03.07	A1	Stable	88.10.01	A+	-	96.06.27	AA-	-
90.04.04	A1	-						
86.11.18	A2	-						

\* (Moody's) RUR: Rating Under Review for Upgrade(+) or Downgrade(-)  
 (S&P · Fitch) Watch Positive > Positive > Stable > Negative > Watch Negative

## 참고 2

## 주요국<sup>1)</sup> 국가 신용등급 비교 ('21.5월 현재)

구분	등급 <sup>1)</sup>	Moody's	S&P	Fitch
투자 등급	AAA (Aaa)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12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11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호주(-), 싱가포르 10개국
	AA+ (Aa1)	핀란드, 오스트리아 2개국	미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홍콩, 뉴질랜드 5개국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3개국
	AA (Aa2)	<b>한국</b> , 프랑스,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b>한국</b> , 프랑스, 아부다비, 대만(+), 벨기에,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아부다비, 마카오
	AA- (Aa3)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마카오, 대만(+)	체코, 아일랜드	<b>한국</b> , 영국(-), 벨기에(-), 체코, 홍콩, 대만, 아랍에미리트
	A+ (A1)	일본, 중국,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중국, 아일랜드
	A (A2)	아일랜드, 폴란드	칠레, 스페인(-)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A- (A3)	페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폴란드, 칠레
	BBB+ (Baa1)	스페인, 태국, 멕시코(-)	페루, 필리핀, 태국	페루(-), 말레이시아, 태국
	BBB (Baa2)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포르투갈
	BBB- (Baa3)	이탈리아, 포르투갈(+), 러시아, 인도(-)	러시아, 인도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
투기 등급	BB+ (Ba1)	모로코(-), 파라과이	모로코,	모로코, 파라과이
	BB (Ba2)	브라질, 남아공(-)	그리스(+), 베트남, 파라과이	그리스, 베트남(+)
	BB- (Ba3)	그리스, 베트남(+)	브라질, 남아공, 피지(-)	터키, 브라질(-), 남아공(-)
	B+ (B1)	피지(-)	터키	이집트, 케냐(-)
	B (B2)	터키(-), 캄보디아, 이집트	몽골, 이집트, 우크라이나	몽골, 우크라이나
	B- (B3)	몽골,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파키스탄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중심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3) 국가명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 긍정적 등급 전망



## Announcement: Moody's -- Strong fundamentals underpin Korea's resilient recovery and Aa2 rating

12 May 2021

Singapore, May 12, 2021 --

- Moody's projects Korea's GDP will rebound by 3.5% in 2021, supported by strong demand for exports and accommodative fiscal strategy
- Government debt rose to 44% of GDP in 2020 and will continue to rise towards 60%, but debt affordability will remain strong

Korea's Aa2 sovereign rating with a stable outlook reflects the very strong fundamentals that have underpinned its resilient recovery from the pandemic shock. Still, rising government debt, ongoing pressures from an aging population and the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pose challenges, according to a new report from Moody's Investors Service that elaborates on Korea's credit profile.

"Korea's GDP contracted 1.0% in 2020, outperforming most of its similarly rated advanced economy peers. We expect its GDP to rebound by 3.5% in 2021 from a low base, supported by strong demand for Korea's manufactured exports - particularly in electronics - and the government's accommodative fiscal strategy," says Christian de Guzman, a Moody's Senior Vice President.

Korea's economy is large and diversified with a strong competitive advantage in export-led manufacturing. Its primary credit challenges relate to long-term economic and fiscal costs brought on by an aging population, and the ongoing risk of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which poses an unusually pronounced event risk for an Aa-rated sovereign.

The government's outlook for continued fiscal accommodation beyond the immediate recovery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sees debt rising to historically high levels, thus testing the long-established track record of fiscal discipline. But Moody's expects Korea's debt affordability to remain strong, as revenue recovers gradually and the average cost of debt stays broadly stable amid deficit funding and refinancing in a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Economic and structural reforms that help raise potential GDP growth and a material reduction in geopolitical risks would create upward rating momentum. On the other hand, a heightening of geopolitical risks, deeper and more sustained damage to the economy from global and domestic shocks, and a large deterioration in government finances would lead to downward rating pressure.

Subscribers can access Korea's Annual Credit Analysis at:

[https://www.moodys.com/researchdocumentcontentpage.aspx?docid=PBC\\_1270331](https://www.moodys.com/researchdocumentcontentpage.aspx?docid=PBC_1270331)